

업계소식

다향오리

⋮

‘소비자 모니터 요원 11기’ 모집

⋮



다향오리는 신제품 평가와 분석 및 레시피 제안 활동에 참여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 11기’를 20~40대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모집했다.

총 30명 내외로 선발한 이번 11기 모니터 요원은 △신제품 평가 및 분석 △제품 아이디어 및 레시피 제안, △SNS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월별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통해 신제품 시식과 아이디어, 정보 교류 등의 시간도 가진다.

선발된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에게는 매월 미션 수행을 위한 다향오리 제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신제품 테스트 및 관련 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모니터 요원들의 다향오리 제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신제품 개발은 물론 브랜드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프레

⋮

‘엄마가 반한 닭’ 브랜드 론칭

⋮



참프레가 ‘엄마가 반한 닭’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엄마가 반한 닭’은 참프레 신선육 제품의 새로운 브랜드로, 지난 ‘2018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를 브랜드화 해 탄생됐다.

참프레에 따르면 ‘엄마가 반한 닭’ 브랜드 론칭과 함께 신선육 라인업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 할 예정이다. 소비자로 대표되는 ‘엄마’의 이미지를 표현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높였고, 최근 에어프라이어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 신선육을 활용한 에어프라이어 조리방법을 패키지에 삽입, 집에서 가족들이 에어프라이어로 건강하고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제공한다.

참프레 마케팅 박제원 팀장은 “참프레의 ‘엄마가 반한 닭’은 우리 소비자들과 함께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며 “2년 연속 베스트 도축장으로 뽑아 주신 소비자분들에 대한 참프레의 보답과 앞으로도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겠다는 참프레의 다짐과 약속이 담겨 있는 제품이다. 앞으로도 신선한 닭고기 생산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 신세계푸드



오리고기 간편식 출시



CJ제일제당과 신세계푸드가 대표적 보양음식인 오리고기를 가정 간편식으로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The더건강한 통오리 오븐구이’를, 신세계푸드는 ‘올반 바짝 오리불고기’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The더건강한 통오리 오븐구이는 오리고기 고유의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파인애플을 넣고 12시간 저온 숙성한 후 오븐에 구워 걸은 노릇하면서도 촉촉·담백한 육즙을 살려 훈제 오리 제품과 차별화 시켰다.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오리만을 엄선, 마늘로 잡내를 없애 깔끔한 풍미를 구현했다.

올반 바짝 오리불고기는 ‘오리 간장불고기’와 ‘오리 고추장불고기’ 2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웰빙 사료를 먹고 자란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오리고기에 높은 항산화력을 가진 흑마늘을 가미해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낸 보양 간편식이다. 또한 사과, 배, 키위, 양파, 마늘, 생강 등을 배합한 특제 양념에 재워내 잡내를 없애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 제품은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리고기 가정간편식으로, HMR 트렌드에 따라 하나의 요리만으로 근사한 식사를 즐기는 ‘원밀형(One-Meal)형’ 메뉴 선호 추세를 반영했다.